

2015 우수 지방공기업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5. 10.

부산시설공단 창의성과팀

【 목 차 】

I 연수개요	1
II 연수일정표	2
III 방문기관 현황 및 질의내용	3
1. 하이델베르크 시청	3
2. 로마 시장관리공사	6
3. 프랑스 예금공탁금고	12
4. 런던 레거시 개발공사	18
IV 방문국가 개요	23
1. 독일	23
2. 이탈리아	26
3. 프랑스	30
4. 영국	33

I 연수 개요

1. 연수목적

- 지방공기업 CEO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해외 우수공기업의 경영철학, 경영 노하우 벤치마킹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해외연수 추진

2. 연수방침

-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 지방공기업 대상 선정
- 지방공기업 혁신방안과 함께 새로운 정책추진 동력 확보 등 선진 지방공기업 해외정책 연수를 통해 업무역량 제고
-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통해 해외 우수 공기업 경영 철학 및 경영 노하우 습득 기회 제공

3. 연수일정

- 기 간 : 2015. 10. 01. ~ 10. 10. (10일간)
- 연수지역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4. 연수자 명단

순번	소 속 기 관	직 급	이 름	순번	소 속 기 관	직 급	이 름
1	행정자치부	행정 사무관	강민지	8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4급 (소장)	박기석
2	지방공기업 평가원	상임이사	공효식	9	부산시설공단	행정5급 (과장)	서길원
3	광주도시공사	차장	정광수	10	경기도시공사	팀장	김상현
4	광주환경공단	행정4급 (과장)	박홍철	11	제주개발공사	관리1급 (팀장)	김현순
5	대구도시공사	처장	김정환	12	안양시	행정4급 (소장)	우계남
6	부산교통공사	상임이사	박기현	13	안양시	행정6급 (수도행정팀장)	한중휘
7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박호국				

II 연수일정표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0.1 (목)	인천	프랑크푸르트		12:30 17:00	○ 인천국제공항 출발(OZ 541) ○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17:00 ~20:00	○ 하이델베르크 시청 방문 자료 준비 - 상호 토론, 협력의제 점검 - 질의사항 리뷰 및 추가 질의 목록 논의	
10.2 (금)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시청	09:00 10:30 13:30	○ 이동(전용차량) ○ 시청 견학 및 하이델베르크 역사 청취 ○ 독일 통일에 대한 의미 청취 ○ 통일 기념 전시회 관람	Director
10.3 (토)				-	○ 휴식 및 관광(전용차량)	
10.4 (일)	하이델베르크	밀라노		-	○ 이동(전용차량)	
10.5 (월)	밀라노	로마	자료준비	09:00 14:00 18:00	○ 이동(전용차량) ○ 로마시장관리공사 방문 자료 준비 - 상호 토론, 협력의제 점검 - 질의사항 리뷰 및 추가 질의 목록 논의	
10.6 (화)			로마시장관리공사	09:00 13:30 15:30	○ 로마시장관리공사 소개 및 환영사 ○ 로마시장관리공사 현황 및 이슈 청취 ○ 운영 및 관리 애로사항 질의응답 ○ 시장관리공사(CAR) 향후 발전계획 청취	Mauro Ottaviano, Manager
10.7 (수)	로마	파리	자료준비	08:00 13:30 14:30 ~17:00	○ 로마 출발(AF1205) ○ 파리 도착 ○ 프랑스 예금공탁금고 방문 자료 준비 - 상호 토론, 협력의제 점검 - 질의사항 리뷰 및 추가 질의 목록 논의	
10.8 (목)	파리	런던	프랑스 예금공탁금고	09:00 09:30 14:00 19:00	○ 예금공탁금고 소개 및 환영사 ○ 프랑스 공공기구 및 지방공기업 현황 청취 ○ 프랑스 예금공탁금고 현황 설명/질의답변 ○ 파리 출발(유로스타) ○ 런던 도착	김형진 전문위원, Director
10.9 (금)	런던		런던 레거시(문화유산)개발공사	09:00 10:00~ 17:00 21:00	○ 시설 소개 및 환영사 ○ 올림픽공원, 수영장, 상업지구 등 시설견학 ○ 애로사항 및 노하우 전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 운영 질의 ○ 영국 런던 공항 출발(OZ 522)	Cobham Manor, manager
10.10 (토)		인천		15:50	○ 인천국제공항 도착	

Ⅲ 방문기관 현황 및 질의내용

1. 하이델베르크시청 : 2015.10.3. 방문

국 가 / 도 시	독일 / 하이델베르크
주 소 및 연 락 처	주소 : Stadt Heidelberg Marktplatz 10, 69117 Heidelberg 전화 : 06221 58-10580 Fax : 06221 58-10900
소 재 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면 적 및 인 구	108.83km ² / 144,634명(2006년)
홈 페이지	http://www.heidelberg.de
방 문 목 적 및 방 문 일	독일 통일 기념식(1990.10.3.)에 맞추어 하이델베르크 시청내 통일 기념 전시회 및 시청광장 통일 기념식 관람, 2015.10.3

① 하이델베르크시 소개

- 네카어강(江) 연안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로 12세기에 처음 문헌에 등장하였다. 1225년 라인 백작령(領)이 되었으며 1720년까지 선제후의 거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 1386년 선제후 루프레흐트 1세(Ruprecht I)에 의하여 설립된 하이델베르크대학교는 프라하대학교와 빈대학교의 뒤를 이어 독일어권에서는 가장 오래 된 대학으로 16세기에 종교개혁의 보루가 되었다. 30년 전쟁(1618~1648) 이후 쇠퇴하였다가 프랑스혁명 전쟁 이후 옛 명성을 회복하여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대학이 되었다.
- 1952년 이후로 유럽 주둔 미군 총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다. 또 16세기와 17세기 초에 건설되었다가 17세기 말 프랑스군에 의해 파괴된 고성으로도 유명하다. 이 성의 지하에는 하이델베르크 튠(Heidelberg Tun)이라는 약 5만 8080갤런 규모의 거대한 술통이 있다. 그밖에 1701~1703년 건립된 시청사와 이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철학자의 길(Philosophenweg)'이라 불리는 오솔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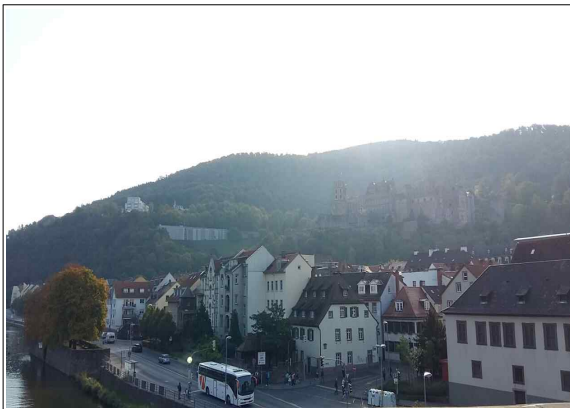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독일 신교도(칼뱅교도)의 신앙고백으로서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Friedrich III)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1563년 발행된 후 널리 호응을 받아 여러 신교 교파에도 채택되었다.
- 기계, 정밀기기, 피혁, 담배, 목제품 등의 제조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관광산업이다. 하이델베르크성(城)을 중심으로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② 독일 통일에 대하여

- 독일의 통일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M.고르바초프(Mikhail Sergeyevich Gorbachyov)에 의해 추진된 소련의 개방과 개혁정책(Perestroyka)이다. 그 영향으로 동구권 국가들이 소련의 눈치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동독도 같은 행보를 걷게 되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첫자유 선거가 실시되어 L.데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정권이 탄생하는 등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었다. 이를 틈타 서독이 막강한 경제력을 내세워 소련에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주변 국가에 외교 공세를 퍼면서 1990년 초부터 독일 통일의 외부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동서 양 당사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이른바 2+4회담이 열려, 8월 말 통일조약이 체결되고, 9월에는 2+4 회담의 승인을 얻어 10월 3일 마침내 민족통일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 통일 후 1990년 12월 2일 전독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H.콜(Helmut Kohl) 총리가 이끄는 통일 정부 구성을 끝냈지만, 통일 전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동독 경제의 회복과 동서독 주민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났던 재산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③ 독일 통일 기념행사 및 전시회

- 2015.10.3. 독일 통일 25주년을 기념하여 프랑크푸르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는데 Alte Oper부터 마인강까지 사람이 꽉 찼다. 25주년 기념으로 프랑크푸르트가 헤센(Hessen)주 대표로 축제를 주최하였다고 하며, 주요한 정치계 인사들이 오페라에 모두 모여 기념식을 했다고 한다.
- 하이델베르크시에서는 시청사 내에 있는 전시관을 활용하여 통일 당시 모습을 담은 모습과 시대상 및 유로화로 통합되기 이전 독일 화폐 등 여러 가지 전시회가 열렸으며, 시청앞 광장에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자선 연주회와 더불어 많은 하이델베르크시민들이 식사를 하며 독일 통일 기념일을 자축하고 있었다.



하이델베르크시 전경



하이델베르크시청 방문



독일 통일 기념 전시회(화폐)



하이델베르크 시청광장

2. 로마시장관리공사(로마도매시장) : 2015.10.6. 방문



① 시장 위치 및 개요

- 주소 : Via Tenuta del Cavaliere, I-00012 Guidonia Montecelio(Roma)
- 개장 : 2002.11월
- 면적 : 1,405,000m²(425,011평)
- 운영주체 : Centro Agroalimentare Roma la Citta dei Commerci(CAR)
- 자본금 : 133.5백만 유로(정부보조 77.4, 시보조 20, 민간투자 36.1)
- 홈페이지 : www.agroalimroma.it
- 입지조건 : 로마 중심가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티볼리 방향 중간의 Tiburtina 근처에 위치에 있으며, 항구,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A1, A2 고속도로, 공항 등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함

② 시장 연혁 및 규모

<시장연혁>

- 1992년 : 신시장 건설계획 승인
- 1995~1996년 : 도매시장 주주들이 신시장 건설과 도로망 정비계획안 승인
- 1997년 : 신시장 건설 착공(이태리와 스페인의 컨소시엄으로 건설)
- 2001년 : 시장 건설 완료
- 2002.11월 : 도매시장 개장

<시장규모>

- 부지면적 : 1,405,000m²(425,011평)
- 주요시설 : 관리동, 청과동, 수산동, 집배송센터, 가공포장센터, 대형잡화점
- 점포구성 : 농산 120개(도매상 112개, 생산자 8개), 수산 48개
- 거래규모 : 연간 83.8만톤(청과 80, 수산 3.8)
- 이용인원 : 연간 100만명
- 근무인원 : 2,500명/1일
- 자본금 : 133.5백만 유로(한화 약 1,735억원)
- 운영주체 : Centro Agroalimentare Roma la Citta dei Commerci(CAR)
 - 시장관리공사(CAR), 이하 “관리공사”
 - 시장관리공사는 시장 진입구와 별도로 위치해 있으며, 시장에서도 관리공사 본관으로 갈 경우 보완시설을 거쳐야 함. 외부도로에서 관리공사에 진입하는 별도의 진입구가 있음
 - 관리공사는 5층 건물 2개동이 "ㄱ"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음
 - 관리공사에는 행정직원 30여명이 있어 시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전회사에도 20여명의 안전요원이 있는데 이는 관리공사에서 외주를 준 것이며, 청소 등은 별도의 용역회사에 맡김.
 - 기존 시장의 경우 로마시에서 관리하였으나, 고대도시와 관광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해방지를 위해 로마 외곽에 조성하였으며 CAR이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중임
 - 민간투자 분야에는 15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상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향후, 유희 부지에 축산물과 화훼분야를 증축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음.

③ 시장 관리 및 운영현황

<시장관리>

- 도매상 입주 계약 및 점포 임대료 등
 - 도매상은 관리공사와 공개입찰을 통하여 5년 계약으로 입주하며 5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산동 점포 임대료는 연간 50,000~60,000유로(약7,000만원)이며, 여기에는 관리공사의 기본 서비스와 청소비, 난방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음
 - 수산동은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여 밤11시부터 아침8시까지 개장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토요일 08~11시에 도매시장에 입장하여 박스 단위의 구매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운영현황>

- 로마시장의 연간 거래량은 83.8만톤 정도이며, 이 중 청과물이 80만톤, 수산물이 3.8만톤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로마시장의 접근성(고속도로, 항만, 항공, 로마시 인접)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거래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지중해, 태평양 생선 등 유입 생선이 다양함)
- 도매시장의 주요 이용자는 소매상, 중간도매상, 이동상 및 대량구매처이며 부류별로는 소매상과 중간도매상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이동상과 대량구매처임. 이들 구매자 모두는 CAR의 구매자 등록을 반드시 거치고 있음.
- 수산시장 마감이후에는 곧바로 청소를 실시하여 우리 연수단이 도착한 시간인 오전 10시에는 냄새가 거의 없었으며, 바닥이 깨끗하였음
- 생선 검역소에 검역원이 매일 상주하여 검역을 거치고 있었으며, 거래되는 생선은 냉동이 되지 않은 생물을 주로 거래하고 있으며 해동 후 재냉동이 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음
- 외부 주차장에는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주차장에 쓰이는 일부 전기를 자체 발전하여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외부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카페를 설치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④ 시장 방문 전경



< 로마도매시장내 수산동 중앙통로와 돔형 자연채광 >



< 로마도매시장내 수산동 시설 설명 청취 >



< 청과동 중앙통로와 돔형 자연채광 >



< 청과동 점포 및 시설 현황 청취 >



< 로마시장관리공사(CAR) 마케팅팀장의 총괄 현황 청취 >



< 로마시장관리공사(CAR)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

3. 프랑스 예금공탁금고(Caisse des Dépôts) : 2015.10.7. 방문



① 프랑스 지방공기업 현황

- 설명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김형진 책임전문위원
(주프랑스대사관)
- 프랑스 공기업 분류

Etablissement 공공기구	Entreprise publique 공기업
공법인 Droit public	사법인 Droit privé
공공 자산	공공 재원 출자
공익 서비스(특정 전문분야)	공익사업 제한 유연
자율경영(독립법인)	자율경영
공무원(행정), 계약직(영업)	계약직(대부분)
행정법원	민사소송
적법성 심사대상 행정행위	회계감사

○ 공공기구 2대 구분

1. EPA : E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Administratif

☞ 행정기능 공공기구

☞ 공무원 신분, 공공 회계

☞ ENA, Meteo France, VNF, BnF, IGN, Pole Emplois, 그랑제꼴

2. EPIC : E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 산업 및 상업 기능 공공기구

☞ 계약직 신분(일부 파견 공무원), 민간 회계 방식

☞ SNCF, RATP, PADESA, VNF, EPADESA, CEA, Opera de Paris

○ SEM, 프랑스 지방공기업 대표유형

- 공공기관 출자로 설립한 사법인

- 혼합경제 익명회사

- 프랑스내 1,200개 지방공기업, 120억유로(16조), 7만명 고용

- 분야 : 도시재생, 대중교통, 상수도 등을 운영

○ SEM, 조직 운영 감사 현황

1. 출자

☞ 지자체 : 50~85%

☞ 기타 : 15~50%

☞ 출자 주주 7개 이상, 그 중 민간분야 주주 1개 이상

2. 조직

☞ 행정위원회, 최고결정기구

☞ 지자체 대표(시장, 부시장)가 CA에 과반 의석 차지

☞ 책임소재 : 대표, 개인이 아닌 주주, 지자체

3. 감사

☞ 공공자본 출자에 대한 감독, 기업체, 일반회계 감독 등 2중 감독

☞ 행정위원회 및 주주, 지자체 내부감사팀 감사(연1회 경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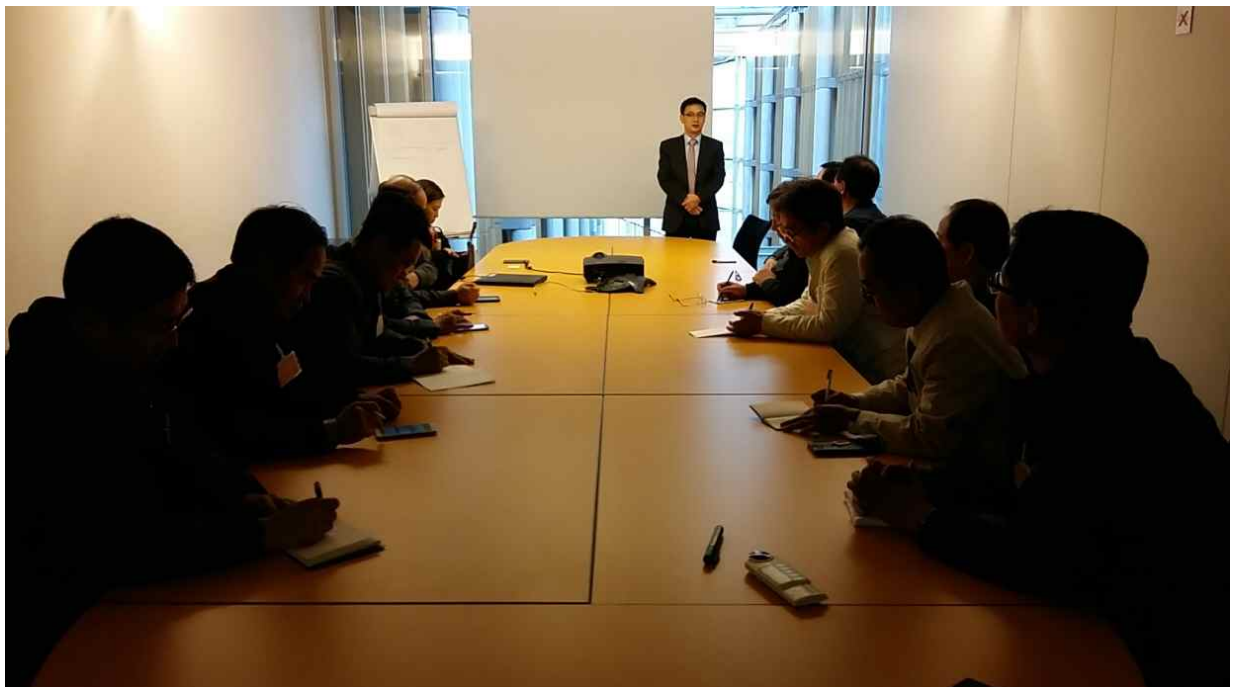
· 경영평가는 시의회에서 승인 후 유지가능

☞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 위촉, 지방회계감사원 상시 및 특별감사

○ 파리 지역 지방공기업 사례



○ 지방공기업 사례 설명 전경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김형진 책임전문위원>

장소 : 프랑스 예금공탁금고 본사 회의실

② 프랑스 예금공탁공사 현황

○ 방문일 : 2015.10.7.(수) 16시~18시

○ 설명자 : 예금공탁공사 견학담당

○ 회사설명(Caisse des Dépôts)

- 총자산 300억유로(약 39조원), 2014년도 매출 3조6천억유로(4,680조원), 예금보유액 243억유로(약31조6천억원)에 달하는 명실상부 프랑스의 국영 공기업이며, 외국법인을 포함한 전체 근무인원은 127,000명으로 경제위기로부터 국가 및 기업 보호와 장기투자가 주된 사업임

- 대한민국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출자한 회사로 유명함

- 1816년 당시 왕이 지배하던 체제에서 전쟁으로 돈을 많이 소진하여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공익을 위한 목적 사업을 추진중임

- 국가, 자치단체, 기업들에게(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 일반은행(1%)보다 다소 높은 이자(1.5~2%)이지만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회의 감시를 받고 있는 공기업임

- 은행, 지방개발투자, 주택지원, 연금, 지방발전(센트강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계열사까지 포함할 경우 주택, 보험, 운반(무역), 환경, 세계기후환경분야, 관광, 특허, 디지털(한국관련)분야 등 프랑스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프랑스 국민들은 이 회사를 아주 오래된 뚝뚝한 아주머니로 표현하고 있음

- 특히, 은행분야의 경우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는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개인은 만들지 못함

- 프랑스의 경우 50명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약36,0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2014년도에만 38개의 공기업이 신설되는 등 총 1,208개의 공기업이 있음. 예금공탁공사에서는 이러한 지방공기업(SEM)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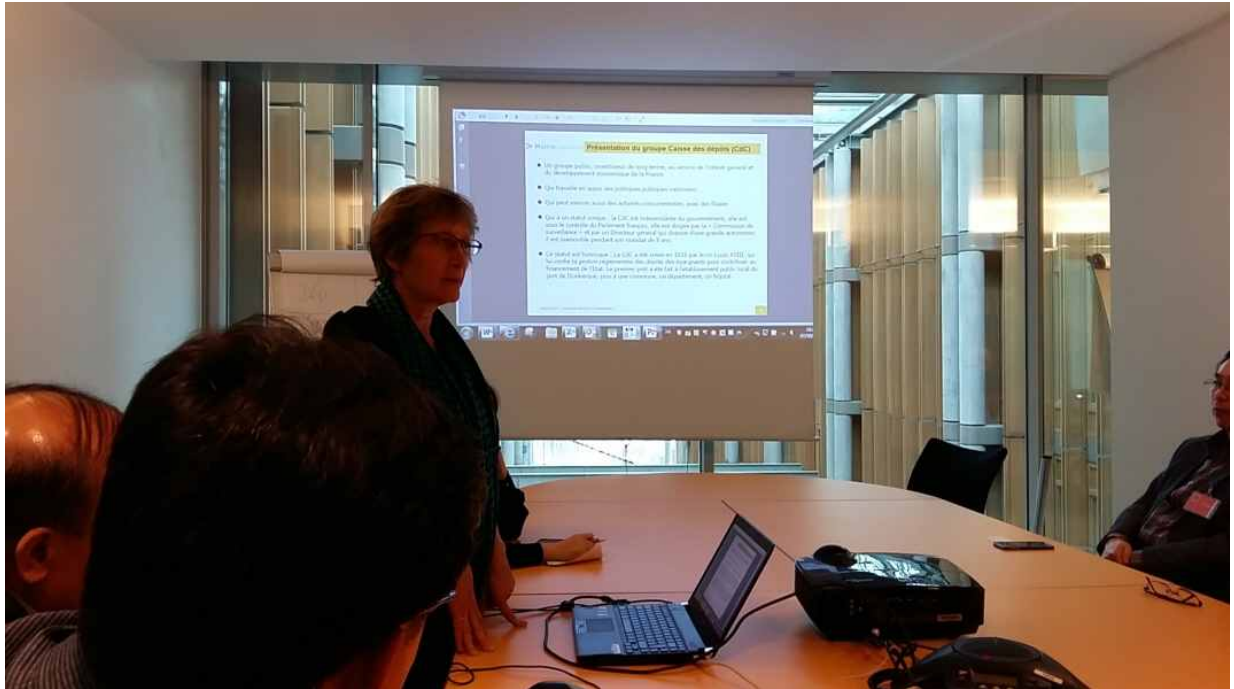
- 이러한 거대 공기업인 예금공탁공사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 민간분야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질의답변

- 공공기구나 지방공기업 설립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지?
 - ☞ 공공기구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 창설되며(ex, 라데팡스), SEM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짐.
 - ☞ 라데팡스 개발청의 경우 국가가 만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라데팡스 개발청이 계속 존속되고 있음.
-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이 날 경우 보전 방법은?
 - ☞ 장기적 투자(30~40년)로 대여하고 있으며, 계열사 손실의 경우에는 타 계열사 이익부분에서 충당하고 있음.
 - ☞ 민간기업에서 손실이 생길 경우 공탁금고에서 부담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경영평가 기준이나 평가만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지?
 - ☞ 경영평가는 시의회에서 평가(승인)하고 있으며, 평가만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은 없음



< 프랑스 예금공탁공사 기관 설명 >



< 예금공탁공사 기관 설명 후 질의답변 시간 >



< 예금공탁공사 기관 방문을 마치고 >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사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김형진 전문위원께서 프랑스 지방공기업에 대한 별도 자료를 준비하신 후 설명해주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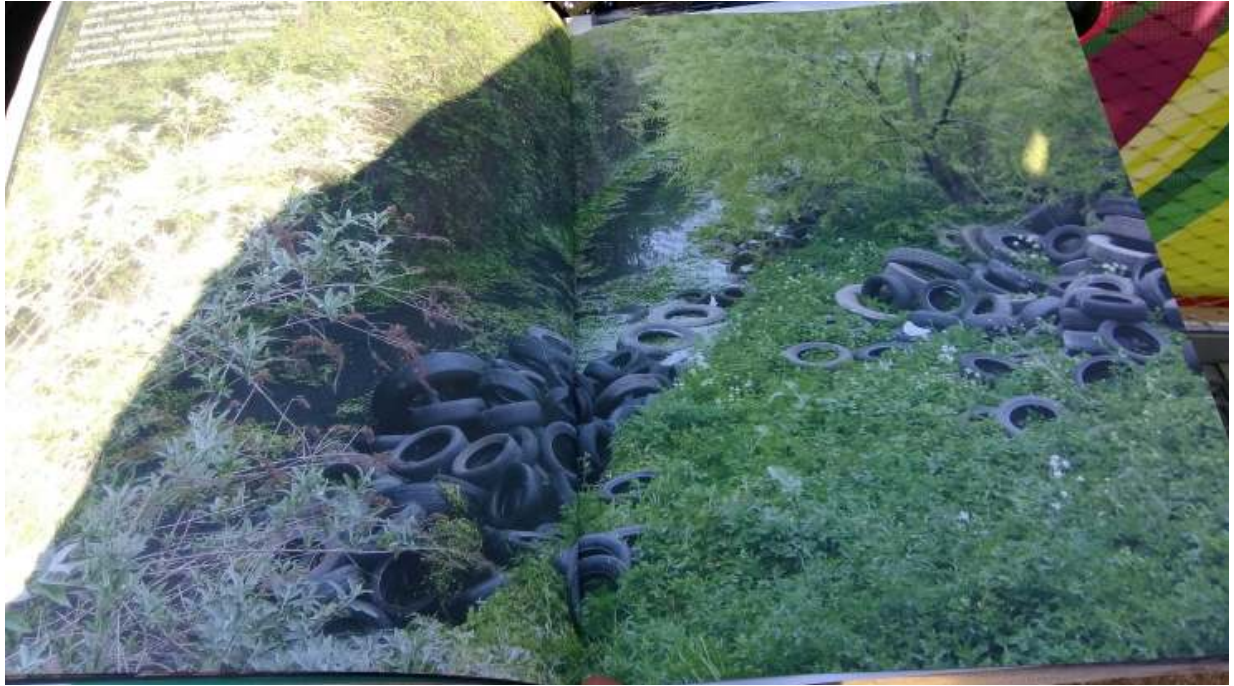
4. 런던 레거시 개발공사 : 2015.10.9. 방문



① 런던 레거시 개발공사(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oration)

- 설명자 : 레거시 개발공사 홍보 담당자
- 주 소 : 5th floor 9-35 West Ham Lane Straford London
- 연락처 : +44 (0)20 3288 1798, info@legacycompany.co.uk
- 2004년 런던 템즈강 주변과 올림픽 후보지 등의 전략적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위해 런던 템즈게이트 개발공사(LTGDC)를 설립하였고, 런던올림픽 개최에 따라 올림픽 재생사업을 전담할 기관으로 런던 레거시 개발공사(이하 LLDC라 함)를 설립함
 - 런던시장 직속기관인 LLDC는 올림픽공원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등과 5천만 파운드(약950억원)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올림픽 공원(Queen Elizabeth Olympic Park) 재개장 및 주변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있음
- LLDC의 설립목적은 올림픽공원과 그 주변지역에 쾌적한 도시공간과 사회, 경제, 환경적인 도시재생을 진흥하고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내용 및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올림픽공원 재개장 및 운영 : "Must see, Must return" 장소 만들기
 - 부동산, 파트너쉽 및 디자인

- 재정독립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전략 실행, 2012년 설립이후 LLDC는 향후 10년동안 올림픽공원과 주변지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조금 및 차입금을 상환하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정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
- 중앙정부, 런던시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활용 가능한 펀드를 최대한 이용
- LLDC의 비전 : 공원, 장소, 사람 세가지 분야에 명시
- LLDC는 여러 기관 및 디벨로퍼와 다양한 방법의 파트너쉽을 통해 개발추진, 올림픽공원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LLDC는 여러기관 및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사업을 추진, 이러한 기관들과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음
- Westfield 그룹을 올림픽공원 재개발에 참여시켜 Stratford 지역은 동런던의 새로운 문화, 쇼핑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는 올림픽경기와 이후 올림픽공원 재생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함
- ※ 올림픽 전 · 후 변경된 시설
 - 올림픽 기간중 선수 메디컬 센터는 사전계획되어있던 헬스센터(Sir Ludwig Guttman Health and Wellbeing Centre)로 변경, 17,000명을 수용하였던 선수촌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로 변경, 조립식으로 되어있던 농구장과 워터폴 및 사이클 경기장은 주거공간으로 변경하였음
 - 최근 좋은 학교시설과 친환경적인 주거공간 및 1~3베드룸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인하여 독신자부터 가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음
 - 테임즈강과 루터강을 연결하여 강을 낀 도시로 멋있게 만들고 있는 중임
 - 수영장의 경우에는 올림픽 기간중에는 조립식으로 많은 관중이 앉을 수 있게 하였다가 올림픽 이후에는 날개부분을 제거하여 현재의 모습 유지 (18개월동안 변경 공사 후 오픈)
 - 수구경기장의 경우에는 조립식으로 공사 후 향후 문화 교육 공간(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부속 공간으로 뮤지컬 공간 등)으로 활용 예정임
 - 메인 스타디움의 경우 올림픽 기간중에는 260,000명의 출입공간이었던 출입구를 대륙별 나무를 식재한 가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올림픽 이전 Stratford 지역 모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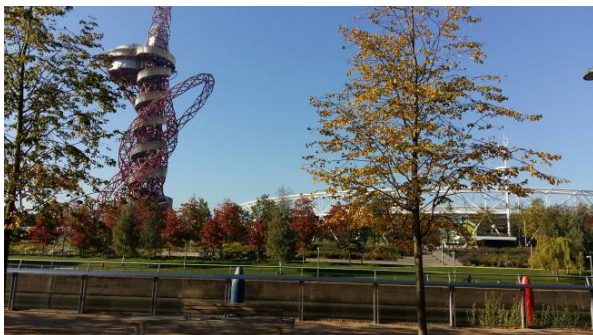


< 올림픽 이후 Stratford 지역 모습 >

※ 총면적 : 208ha(런던 하이드 파크와 비슷),
 조성비용 : 970억 파운드(조성비 75%, 건물 25%)

② 런던 올림픽 레거시 재생사업의 핵심

- 올림픽경기의 성과를 재생사업으로 확대시켜서 올림픽경기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있음
- 재생사업은 크게 올림픽공원사업과 올림픽공원 주변지역사업들로 구분되어지고, 시기적으로 보면 올림픽공원 사업이 완료된 후, 주변 지역의 사업들이 실행
- 올림픽공원사업은 2013년 7월 변환과정을 거쳐 재개장하였고, 주변 지역사업들은 마스터플랜 수립하에 현재 진행중에 있음. 위치에 따라 크게 5가지 주변지역사업으로 구분
- Leyton, Stratford, Hackney Marshes, Hackney Wick, Bromley-by-Bow 지역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은 LLDC 주관으로 관련된 지방정부, 기관, 디벨로퍼, 지역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



< 철강회사에서 만든 조형물 >



< 메인 스타디움 출입구 >



< 재활용중인 수영장 설명 >



< 조립식 관중석 제거후 활용 모습 >



< 런던 레거시 개발 공사 방문을 마치면서 >



< 런던 레거시 개발 공사 방문을 마치면서 >

IV 방문국가 개요



【 일반 현황 】

- ◆ 수도 : 베를린(Berlin, 약 350만명)
- ◆ 인구 : 8,099만명 (세계 17위)
- ◆ 기후 : 온화, 다습(년평균 기온 9℃)
- ◆ 면적 : 357,022km²
- ◆ 주요도시 :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함부르크(Hamburg), 뮌헨(Muenchen)
- ◆ 주요민족 : 게르만족(99%)
- ◆ 주요언어 : 독일어
- ◆ 종교 : 신교(36.4%), 구교(34.6%), 기타(29%)



중세고성과 맥주의 나라, 유럽의 경제중심, 독일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로맨틱가도와 경제발전의 모델인 라인강의 기적, 다양한 맥주와 게르만 민족의 나라, 더불어 동·서독간 통합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통일 과정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 지리

남북으로 876km 동서로 640km에 걸쳐 있다.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지며 전체 면적은 357,000km²(한반도의 1.5배)이다. 북부지역은 북해와 발트해에 접하고 있는 저지대이며, 중부지역은 고도의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1,000m 정도의 고원으로 삼림이 풍부한 구릉지대로 유명한 흑림등의 대규모 산림군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남부지역 또한 높은 산악지대로 알프스 기슭을 따라서 펼쳐진 고원지대로 보덴 호등 수려한 경관의 호수들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전체 지형은 남쪽의 알프스에서 북쪽의 북해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라인강 등 주요 하천이 북쪽으로 흐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 기후

북서부지역은 해양성기후, 남동부는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며, 여름은 온화하나 번덕스러운 날씨를 보인다. 봄이 대체로 늦게 오므로 여름이 짧은 편이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라인강이 얼 정도로 추위가 혹독하다. 청명한 날씨는 해안지역은 4-5월, 내륙지역은 6-9월에 볼 수 있다. 6월까지의 샤프트케르테라 불리우는 추운날이 종종 급습하며, 연중 갑자기 비오는 날이 많다.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북부의 경우 17-18℃, 남부는 25℃로 서늘한 편이다. 여름철에는 간단한 스웨터를, 봄·가을에는 따뜻한 자켓을, 그리고 겨울철에는 두꺼운 코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통화

통화 단위는 유로(Euro)로 2002년 03월부터 도이치 마르크 대신 전면 사용되었다. 동전주화는 1, 2, 5, 10, 20, 50 유로센트 그리고 1, 2 유로 8종이며, 지폐는 5, 10, 20, 50, 100, 200, 500, 유로 7가지가 있으며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지폐의 종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100유로 이상의 고액 지폐는 사용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최고 100유로짜리로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유럽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로체크, 여행자 수표, 크레딧 카드가 거의 전역에서 통용된다.

◆ 사회/문화

독일어가 공용어이나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영어도 통용된다. 그러나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영어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독일은 문학적으로 풍부한 생활권

으로 다양한 작가와 철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괴테와 쉴러, 토마스 만과 헤르만 헤세 등의 작가와 하이네, 릴케 등의 시인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와 함께 전세계 클래식 음악가의 태반을 배출시킨 음악의 나라로, 바흐와 헨델,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바그너, 베토벤 등 세계 거장의 음악가가 모두 독일에서 나왔다. 또한, 드라마 작가인 브레히트와 패션 디자이너인 요프, 독일의 전설인 니벨룽겐과 영화감독 빔 벤더스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시험적으로 자연환경을 개척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건축물, 기념물, 언어, 음악, 시각적인 예술분야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 행정구역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이들 주는 연방헌법에 의거해 저마다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 국가적 업무는 연방과 더불어 적절히 나누어져 있는데, 학교제도, 문화, 대중매체 등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분야는 주의 결정권이 우선적이지만, 자연 및 환경보호와 같은 영역에서는 연방이 법적 집행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위의 설명과 같이 독일의 광역 행정구역은 16개의 주(Bundesland)로 이루어져 있다. 이 16개의 주중에서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3개 도시는 비록 면적은 작지만 도시 자체가 하나의 주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16개 광역 행정구역에 대해 독일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서 행정구역개편 작업을 모색중이라고 한다. 주 행정단위 밑으로는 행정관구(Regierungsbezirk, 行政管區), 자치시(Kreisfreie Stadt, 自治市), 군(Kreis, 郡), 게마인데(Gemeinde, 邑.面.洞)가 있는데 이런 행정구역은 각 주마다 차이점이 있다. 독일은 소국가 형태로 나뉘어져 있던 지역들이 열강의 분할정책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자치형태를 띄면서 역사를 진행해오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스마르크에 의해 단일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주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편이다.

◆ 시차

우리나라보다 8시간이 늦고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9월 마지막 일요일까지의 서머타임 실시 기간에는 7시간 늦다. 섬머타임 실시하지 않을 때 기준으로 서울이 정오이면 독일이 새벽 4시이다.



이탈리아

【 일반 현황 】

- ◆ 수도 : 로마(Rome)
- ◆ 인구 : 6,168만명 (세계 23위)
- ◆ 기후 :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 ◆ 면적 : 301,340km²
- ◆ 주요도시: 로마(Roma), 밀라노(Milan), 나폴리(Napoli)
- ◆ 언어 : 이탈리아어(Italian)
- ◆ 종교 : 카톨릭(90%)



고대 역사와 최첨단 유행이 공존하는, 이태리·이탈리아

고대의 화려한 전통과 유물을 간직하며, 현대의 최첨단 패션과 유행을 잘 융합시키고 있는 이탈리아는 유럽 대륙에서 지중해 쪽으로 장화처럼 뻗어 나와 있다.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운 곳으로 줄리어스 시저 등이

활약한데 이어, BC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왕위에 오른 것으로 시작된 로마 제국은 그 뒤 아프리카 북부는 물론, 중동과 영국에까지 손을 뻗치는 큰 제국을 이루었다. 4세기 말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세계 종교로 전파시켰다. 15세기에는 높아진 시민 의식과 귀족들의 비호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으며, 5세기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분열된 국토는 1861년에야 통일을 보았다.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승전국과 패전국의 자리에 서게 됐으며, 2차대전 뒤에는 자동차 공업, 패션 산업, 관광 등으로 경제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공업이 발달해 부유한 북부 이탈리아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는 가난한 남부 이탈리아가 공존하고 있다.

◆ 지리

유럽대륙으로부터 지중해쪽으로 긴 장화 모양을 하고 있는 길이 약 1,170km의 반도국가인 이탈리아는 반도와 시칠리아섬, 사르데냐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면적은 301,230km²로 한반도의 약 1.5배정 도되며, 산지와 구릉이 많고 평야는 전국토의 1/5정도 밖에 안된다.

지반이 불안정하여 지진이 잦으며, 시칠리아섬의 에트나산은 유럽 최고의 화산으로 화산운동을 하고 있는 분화구와 900여개가 넘는 기생화산이 있다. 북쪽은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서쪽은 시칠리아·사르데냐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은 아드리아 해에 면해 있다.

◆ 기후

이탈리아는 4계절의 변화가 분명하지만,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후보다 약간 덥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아페니노 산맥의 영향으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29℃, 겨울의 평균 기온은 9℃정도로 온난하다. 강수량은 연평균 600~1,000mm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한다. 강수일수는 계절적으로 편중되지는 않았으나 주로 가을에 많이 내리며, 여름에는 햇볕이 강렬하나 습기가 없어 지낼만하다.

◆ 사회/문화

공용어는 이탈리아어이며 국경 주변에서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섞어 사용하는 곳도 더러 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지의 식당이나 상점, 호텔 등에서는 영어가 통용되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국교는 로마 카톨릭교도로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며 결혼식, 장례식 등이 대부분 교회에서 행해진다.

이탈리아는 지방별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지금도 각 도시별로 통일성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을 이동할 때마다 이탈리아의 특색 있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 시차

한국보다 8시간 늦다. 한국이 정오면 이탈리아는 새벽 4시이다.

단, 서머타임 기간(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9월 마지막 일요일까지)에는 7시간 늦다.

◆ 통화

통화 단위는 유로(Euro)로 2002년 03월부터 리라 대신 전면 사용되었다. 주화는 1, 2, 5, 10, 20, 50 유로센트 그리고 1, 2 유로 8종이며, 지폐는 5, 10, 20, 50, 100, 200, 500, 유로 7가지가 있으며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지폐의 종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100유로 이상의 고액 지폐는 사용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최고 100유로짜리로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현재 UDS는 은행이나 공항 등에서 사용되며, 명품점 등의 가게에서는 유로만 고집하는 곳도 있다.

*****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매력적인 도시, 로마 *****



ROMA 를 거꾸로 하면 AMOR!!

사랑의 도시 '로마'는 한마디의 말로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매력을 소유한 도시이다.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는 옛 유적을 그대로 보존한 채 현대문명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소매치기와 줌도둑으로 악명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는 군사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神)인 마르스(MARS)와 인간인 레아 실비아(Rhea sivia)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레무스(REMUS)와 로물루스(ROMULUS)에 의해서 건국 되었다고 한다. 태어난후 티베레강에 버려진 쌍둥이 형제를 암늑대가 젖으로 키웠다고 전해지며,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와 같은 로마를 세운 시조로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이다. 티베레강 하류에 접해 있으며, 대부분이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로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원의 도시'이다.

➤ 바티칸 시국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안에는 바티칸이라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곳은 전세계 카톨릭의 총본산이라는 성스러운 의미 외에도 미켈란젤로의 불굴의 명작인

"천지창조"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등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이탈리아 미술의 보고이기도 하다.

- 위치와 면적

바티칸 시티는 이탈리아 로마 시내 테베강 서안에 자리잡고 있다. 한번에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 베드로 광장 앞에는 흰색 선이 도로 위에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와 바티칸을 구분짓는 국경이다. 바티칸은 이탈리아가 19세기 들어 근대통일국가로 탈바꿈하면서 교황청 직속 교황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1929년 이탈리아와 교황청 주변의 지역에 대해 주권을 인정하는 라테라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영토 0.44km²의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 독립국이 되었다. 현재 바티칸의 영토권은 성베드로 대성당과 로마에 있는 성당과 궁전을 포함한 13개 건물, 로마 동남쪽 120km지점에 있는 카스텔 간돌포(Castel Gandolfo)의 교황하계 관저에 국한된다. 영토 내에는 성 베드로 광장, 대성당, 교황궁전, 관청, 미술관, 도서관, 은행, 방송국, 인쇄국, 철도역, 우체국, 시장 등이 있다.



【 일반 현황 】

- ◆ 수도 : 파리(Paris)
- ◆ 인구 : 6,625명 (세계 21위)
- ◆ 면적 : 643,427km²
- ◆ 주요도시 : 리옹(Lyon), 마르세이유(Marseille), 보르도(Bordeaux)
- ◆ 주요민족 : 골족(Gaul)
- ◆ 주요언어 : 프랑스어(French)
- ◆ 종교 : 카톨릭(83%), 이슬람교(10%), 기독교(2%)



낭만과 예술의 나라, 유럽의 자존심 프랑스

◆ 개요

프랑스를 빼놓고 유럽을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술과 패션, 와인과 축구, 낭만으로 가득찬 프랑스를 많은 사람들은 동경한다. 그 덕분에 프랑스에는 항상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는다.

더불어 프랑스는 뛰어난 과학기술과 스포츠 강국으로도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자신만의 문화를 잘 지켜나가는 자신감의 나라이기도 하다.

◆ 사회/문화

선주민은 켈트족이었으나 후에 로마인과 프랑크인이 들어와 켈트, 라틴, 게르만계의 혼합족을 이루어 오늘날의 프랑스인들이 되었다.

전인구의 7% 정도가 외국에서 이민온 사람들이고,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98년 집계된 인구수는 6,090만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50%이상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에 살고 있다. 파리 지역에만도 약 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 경제

19세기 대영제국과 함께 서양열강의 주축을 이루던 프랑스는 현재 EU국가 중의 하나이며 현재 투자규모로 볼 때 한국이 EU국가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제 3위 국가에 속하며, 세계 제 6위의 투자국이다.

(1999년 기준) 99년을 기준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져보면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 중 중위권을 차지하지만 프랑스의 국민 총생산(GDP)으로 따지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다음으로 세계 제 5위의 경제 대국이다.(92년까지는 4위였음)기간 산업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대외수지는 현재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총 도로 807,601km, 철로 34,469km로 각각 유럽 최장 길이를 자랑하고 있다. 세계 제 4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기도 한 프랑스는 교통 분야에서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전철을 달리게 될 TGV가 바로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제작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최초 위성 '우리별 1호'는 프랑스의 아리안 로켓에의해산업에 대한 노하우도 막강한 나라이다.

◆ 지리

총 면적 551,695km²로 서유럽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프랑스는 EU회원국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1천 1백만 km²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비롯한 넓은 영해를 가지고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2/3가 평야이며,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스페인과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이 있고, 북서쪽으로는 영국해협과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쥐라, 보즈, 알프스 등의 산맥을 걸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와 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악지대는 국경 일부분에 국한되고 국토의 대부분은 평야와 구릉지대로 되어있다. 또한 북해, 영불해협, 대서양, 지중해 등 4개의 바다와 접해있는 프랑스는 5,500km²에 이르는 연안을 가지고 있다.

◆ 기후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서양 연안은 해양성, 알프스지방은 겨울이 긴 대륙성, 마르세유 등은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이다. 우리나라의 4계절과 시기가 비슷하며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편이다. 지역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크므로 행선지의 기후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파리의 경우, 겨울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습기찬 날씨를 보인다. 반면에 여름에는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므로, 6월 이후 9월까지의 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외투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건조한 탓에 건물 내에서는 덥지 않다.

◆ 시차

우리 나라보다 8시간이 늦어, 한국의 정오가 프랑스에서는 오전 4시다. 4월-10월까지는 썸머타임이 적용되어 -7시간 차이가 된다.

◆ 통화

통화 단위는 유로(Euro)로 2002년 03월부터 프랑(fr) 대신 전면 사용되었다. 현재 USD는 은행이나 공항 등에서 사용되며, 명품점 등의 가게에서는 유로만 고집하는 곳도 있다.



【 일반 현황 】

- ◆ 수 도 : 런던(London)
- ◆ 인 구 : 6,374만명 (세계 22위)
- ◆ 면 적 : 243,610km²
- ◆ 주요도시 : 에딘버러(Edinburgh), 리버풀(Liverpool), 캠브리지(Cambridge)
- ◆ 주요민족 : 앵글로 색슨(Anglo Saxons), 켈트(Celts)
- ◆ 주요언어 : 영어(English)
- ◆ 종 교 : 성공회(29%), 카톨릭(15%), 기타(56%)



유럽으로부터 독자적 자존심을 유지하는, 영국

대륙과 떨어진 섬나라로 유럽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에 묶이는데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다. 그렇듯 영국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독자적인 자존심을 유지하는 나라이다.

◆ 개요

영국의 정식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연합국가인 셈인데, 그레이트 브리튼은 북부의 스코틀랜드, 남동부의 잉글랜드, 남서부의 웨일스로 되어 있다. 영국의 기원은 5-6C 경 게르만계의 앵글로 색슨족이 잉글랜드에 침입해 9C경 통일된 왕국을 수립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앵글로 색슨족과 켈트족간의 갈등은 지금도 남아 있다. 영국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헌장(마르나카르타)의 제정을 비롯해 시민 혁명, 권리장전 등 세계 민주주의의 발생국인 동시에 제국주의의 아성을 쌓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차세계 대전이후 식민지의 잇따른 독립으로 화려했던 대영제국의 면모는 많이 사라졌으며, 1997년 7월 1일을 기해 홍콩도 중국에 반환되어 비로소 제국주의의 종말을 고했다.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제로 국왕이 원수이나, 정치적 실권은 수상이 가지고 있다.

주요 산업은 금융업, 철강, 관광산업이며, 주요 교역 대상국 유럽 연합과 미국이다.

◆ 기후

영국의 날씨는 '하루동안에 4계절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특징이다. 한여름에도 해가 가리거나 비가 내리면 냉기가 들 정도이다. 멕시코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온난한 기후를 나타낸다. 겨울철 특히 바람이 없는 날에는 안개가 끼고 비 내리는 날이 많다. 연간 강수량은 많지 않으며 1년 내내 날씨가 흐리고 지나가는 비가 많다. 비교적 날씨가 좋은 시기는 5-10월이다.

1-2월의 평균 기온은 5℃이며, 7-8월의 평균 기온은 16℃로 한난의 차가 적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는 8-9시까지 밝지만 겨울에는 3시에 벌써 해가 지는 일도 있다. 복장을 우리나라 가을쯤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사회/문화

약 6,100만명의 인구 중 주요 인종은 앵글로 색슨 계이며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은 켈트 계가 중심을 이룬다. 퀸즈 잉글리쉬로 불리는 정통파 영어가 공용어이며, 약간의 웨일즈어와 켈트어가 쓰인다.

영국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차갑고 꼼꼼한 인상을 주지만 대체로 공손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매우 유머스럽다. 영국에서는 광범위한 분야의 문화활동이 성행하고 있으며 많은 영국인들이 예술 및 언론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종교는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약 29%를 차지한다.

◆ 시차

◎ 일반적인 시차

한국보다 9시간 늦습니다. 한국 오전 09:00일때 영국은 00:00입니다.

◎ 썸머타임 기간 (3월 마지막주 일요일~10월 마지막주 일요일)

영국은 한국보다 8시간 늦습니다.

예) 한국 오전 09:00일때 영국은 01:00입니다.

◆ 통화

파운드(£)를 사용하며, 지폐는 £50, £20, £10, £5의 4종류가 있다. 동전은 종류별로 £1, 50p, 20p, 10p, 5p, 2p, 1p가 있다. 유럽 통화 가운데 돈의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낭비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1의 고유 지폐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으며, 영국의 해협제도와 맨섬의 경우 본토와는 다른 동전과 지폐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폐제도는 동일하다.

환전은 시중은행이나 환전소에서 가능하다, 은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제한 영업 (주로 낮 12시 30분까지)을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은행이 모두 문을 닫는다.